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약본문 해석과 적용: 룯기를 중심으로

신득일(고신대학교)

I. 논쟁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 수가 2001년에 56만여 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170만에 달했다. 그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수치에 이르고 그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구글정보). 이 통계는 한국이 단일민족, 단일문화가 아니라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구약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룬 구약본문이 룯기일 것이다(예: 이성혜, 2015; 정중호, 2012; 여한구, 2010 등).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서 룯기해석과 적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그 해석과 적용에 룯기 본문의 의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룯기의 해석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대적 적용문제를 다룰 것이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본문해석과 적용이다. 먼저 해석부분에서 다양한 해석문제를 언급하면서 구약계시역사의 중심이 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문을 다문화 가정의 상황에 적용하는 범위와 한계를 다룰 것이다. 그것은 본문의 핵심적 메시지와 파생적 교훈에 관한 것이다.

II. 본문해석 문제

룯기를 해석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 말은 주제별로 묶어서 본문을 설명함으로써 룯기를 한 절 한 절 주석을 하거나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대략의 순서를 따른다. 여기서 핵심구절을 주석하면서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1. 나오미의 역할

(1) 나오미의 신앙(1장)

나오미의 신앙과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근과 이주와 관련된 내용이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이지만 그 남편과 같은 성격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봐도 무관할 것이다. 그들이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가족 내에서, 적어도 부부간에 합의된 사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사시대에 이 가정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이주 이상

의 의미가 있다. 즉 그들의 이주는 족장들의 이주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창 12:10; 46:6). 사사시대는 족장시대와 상황이 다르다. 사사시대는 각 지파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은 땅을 떠나지 말고 자기 기업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기근 때문에 기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모압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었다(cf. 포로후기의 관점, LaCocque, 2004: 37).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연한 자연적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신명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 풍요를 허락한 반면에(신 28:12), 거역하면 비를 그친다고 했다(신 28:24). 그래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것은 백성의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다(신 30:10).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회개하지 않고 두 아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서 ‘모압의 들’(ś *ēdē mō'āb*)로 갔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육의 양식을 찾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나온 양식을 기대했던 것이다(Wolff, 1974: 452).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마 6:32). 이와 같이 룯기는 처음부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언약에 불충한 인물이라고 말해준다.

둘째,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난 후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된 것이다(신 7:3). 이 율법은 가나안인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다른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 말론과 기론은 이 율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방인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종족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멀리 보내는 것이나(창 42:4)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도록 권한 것은(창 28:1-2)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에 대한 이실레는 구약에서 부모가 결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Vaux, 1961: 29). 나오미의 경우는 아들들이 결혼할 때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에 동의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적인 것은 이스라엘인을 자부로 들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도 못하는 모압 여인을(신 23:3)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또 다음 구절을 볼 때 언약에 충실한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 같은 나오미의 신앙은 의심을 살만 하다. 고대사회의 결혼에서 부모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렇다(창 21:21; 27:46-28:2; 수 15:16-17).

셋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충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약에 반하는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으나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것 같다(1:7). 그녀는 자신도 외국이주민으로 10년 세월을 보낸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의 백성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엘리멜렉의 가족이 된 자부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맞지 않다: “결혼함으로써 여자는 자

기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살러가서 남편의 종족에 가담한다”(Vaux, 1961: 28). 또 언약적 임무를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도 아니다. 나오미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룻 1:8)라고 권고와 인사말을 한 것은 의심스럽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일반적인 표현인 ‘아버지의 집’(창 38:11; 레 22:13; 사 19:2-3)이라는 말 대신에 ‘어머니의 집’(bēt ’ēm)이라고 쓴 것은 라코크(LaCocque, 2004: 45)가 주장하듯이 그것이 여성작가이기 때문에 선택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과부는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야지 시어머니와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Younger, 2002: 420).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암시한다. 또 ‘선대하다’(hēseḏ)는 말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의미하지만 문맥상 ‘신실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Koehler et al., 1999: 337). 그녀의 덕담에서 두 번 쓰인 이 단어가 자부들에게 적용될 때는 가족에 충성된 삶을 의미하겠지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그들에 대한 신실성과 은혜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어떻게 모압의 친정에서 누리기를 바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믿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나라에서나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을 만큼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구문과 단어구성이 난해하지만(Bush, 1998: 76) 개역개정 번역의 의미는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모압 남편의 집에서 ‘위로’(m^enūhā)를 받으라는 말이 안전이나 거쳐와 관계가 된다면 의미전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약속의 땅에서 주어진 성취의 내용인 것을 볼 때(신 12:9; 왕상 8:56)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역성경의 ‘안식’도 개역개정의 ‘위로’도 이방인인 모압인 남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오미는 ‘안식’이나 ‘위로’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 같다.

나오미의 권고를 듣고도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부들에게 계대결혼을 언급한 것(룻 1:11-13)은 나오미가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더 치명적인 말은 나오미에게 설득을 당하여 돌아간 오르바를 예를 들면서 룻을 설득하는 말에서 나타난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룻 1:15). 룻도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충격적인 권고는 그녀가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압 사람은 그모스를 섬기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이었다. 여기서 그녀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나약한 믿음을 보였다고 동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나오미의 주선(2-3장)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곡식을 가져온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이후에 룻에

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룯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에바의 곡식을 가져왔을 때 나오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십이 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곡식 때문에 놀라운 것은 아니고 그녀는 그 곡식과 보아스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무를 무를 자중의 하나이니라”(룯 2:20). 그것은 나오미에게서 발견된 불신앙적인 요소와는 달리 그녀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한다. 인간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Crossen, 2000: 61). 이 순간 나오미는 이전과는 달리 변화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보아스가 근족으로서 기업무를 사람 중에 하나로 인식한 것은 레위기 율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봐야할 것이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 25:25). 이 규정은 희년이 되기 전에도 가난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배려한 특별한 은혜의 장치로 주어진 것이다(레 25:28).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기업무를 자 중의 하나인 보아스를 통해서 룯에게 주려는 것은 ‘안식(처)’이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룯 3:1). 나오미가 지금 말하는 안식은 모압에서 잘못 적용한 안식과는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오미가 룯이 보아스를 통하여 누리기를 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언약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그가 말씀하신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왕상 8:56).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나오미는 기업무르는 일을 위해서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그녀는 친절하게 룯이 단장하는 것과 보아스를 만날 장소와 방법까지 다 알려주었다. 그러나 나오미의 기대와는 달리 일이 의도한 대로 곧 바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근족이 아니기 때문이다(룯 3:12). 물론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첫 번째 시도가 틀어진 가운데서도 나오미의 반응은 성숙한 성도의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일이 그르친 것을 알고도 불평하거나 조바심을 내지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잠잠히 따랐다(룯 3:18a).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 가운데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또한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룯 3:18b). 결국 모든 일의 과정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을 따라서 한 대로 성취되었다. 나오미는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추구한 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여는 것이다.

2. 룯의 맹세와 행동

(1) 룯의 맹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현실적이고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와는 달리 룯이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은 놀랍다. 룯이 시모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한 말은 일종의 신앙고백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룯 1:16b-17a).

룯의 발언은 국적을 바꾸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 주석가들이 주장하듯이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회심이나 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Harris, et al., 2012: 322). 또 그녀가 사용한 언어의 양식은 언약적인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왕상 22:1-4; 왕하 3:4-7) 그것을 비로소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자부들을 이미 “내 딸들아”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이다(룯 1:13). 굳이 언약과 관련짓는다면 다만 이미 맺어진 관계를 다시 확약하는 ‘언약갱신’의 요소는 감지된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말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말로써 룯은 나오미와 가족적인 연대를 지속하려는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Smith, 2007: 247).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결혼하면 시댁식구가 되는 관습에 충실한 행동이기도 하다(Vaux, 1961: 28).

룯이 한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앙고백의 요소가 있지만 우선 나오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녀는 나오미와 같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와 동행, 동거하고 어머니의 신과 백성이 곧 자신의 신과 백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오미와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죽어서 무덤까지 같이 가는 것은 사랑을 넘어서 일종의 집착으로 보인다. “왜냐하면”(ki)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에서 룯의 선택과 행동은 나오미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해설자가 “룯은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dāb °qā*)”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룯 1:14b). 또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룯 1:17b)하고 하면서 룯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사용되는 서약형식인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저주를 내렸다. 이때 구문론적으로 애매한 접속사 ‘키’(ki)는 강조의 뜻으로서 룯의 생각에는 죽음만이 둘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Conklin, 2011: 1-2).

룯의 맹세가 일차적으로 나오미와 가족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구조적으로도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대칭구조 가운데 중심에 해당된다(Waard & Nida, 1991: 17; Block, 1999: 640). 룯이 여호와를 선택한 것은 나오미의 영향이나 교육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룯에게 언약적으로 선택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오미 가정이 기업을 버리고 떠난 것과 자녀의 이방인 결혼과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은 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환경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정당화시킨다. 여기서 “선택의 표”가 나타난다(Cnossen, 2000, 49).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그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분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룻의 행동

본문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룻을 동격으로 설명하는 말 중에 ‘돌아온 자’(haššābā)로 칭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룻 1:22). 이 단어는 마소라 학자들은 마치 완료형에 관계사를 의미하는 관사를 붙인 것으로 이해하고 액센트를 전종음절에 찍었지만 저자의 의도는 명백히 분사에 관사를 붙여서 관계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Gesenius, 1910: 188k). 그래서 시제도 본동사 ‘돌아왔다’와 일치한다. 사실 그녀는 돌아온 것이 아니고 모압의 들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했을 뿐이다. 안 쓰도 되는 말로써 룻을 이렇게 수식한 것은 룻이 단순히 귀환 이주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기(정중호, 2012: 189)보다는 주인공 룻을 이미 그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룻이 처음 한 일은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다.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줍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을 보면(Tigay, 1996: 229) 룻도 그 제도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나오미에게서 그 제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룻과 같은 이주민과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였다(레 19:10; 23:22). 룻은 그 일이 가장 비천한 신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권리를 이용했다. 룻이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서 간 곳이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룻 2:3). 본문은 처음부터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그가 엘리멜렉의 근족인 것을 밝힌다(2:1) 그녀는 보아스의 밭에서 그의 환대를 받으며 언약 공동체 내의 형제와 자매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 보아스가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가 이방인인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사랑은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2:4-10). 정중호(2012:186)교수가 지적하듯이 룻은 이주자가 아니라 이방여인(nōkriyyā)이기 때문에 그녀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와 장로들이 모압 여인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요청에 응했기 때문이다(4:4). 그녀는 이미 나오미의 자부이자 말론의 아내로 인정받고 있었다.

룻은 나오미의 주선으로 그 다음 단계의 순서를 밟게 된다. 그것은 보아스를 통한 계대결혼이었다.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단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3:6).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무를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3:9). 보아스의 답에서 뜻하지 않게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무르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데서 심적으로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3:12). 그러나 룯은 순간적으로 실망했는지는 몰라도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보아스를 믿고 그 일의 진행과 결과를 기다렸다(3:18).

룯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와 룯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1:19) 룯은 믿음으로 그 공동체의 제도에 순응했다.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미리 언급된 근족관계를 맺기 위한 일이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봐야 한다. 룯이 변화된 나오미의 조언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아스의 기업무를

(1) 보아스의 환대

보아스는 룯을 만나기 전부터 그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2:11). 보아스가 그녀를 보호하고 음식과 양식을 제공하며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룯이 시어머니에게 한 보답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그녀의 행실이 여호와와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2:12). 보아스의 밭에 다른 이삭 줍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룯에 대한 보아스의 환대는 우선 친척관계에서 그리고 룯의 행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아스의 관대함은 룯에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일깨워 준 셈이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룯에게서 기업무를 자의 임무를 요청받았을 때도 당장 그녀의 청을 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성숙한 면을 보여준다. 그는 스스로 룯과 같이 젊은 여인의 적절한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푸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3:10). 그리고 이 번역의 뒷부분은 문자적으로 “너가 인애를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낮게 베풀었다”고 번역할 수 있다. 문맥을 고려할 때 처음 인애는 나오미에 대한 것이고 나중 인애는 보아스 자신에게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Goslinga, 1938: 147-148; Waard & Nida, 1991: 53). 이 말이 이어질 구속과 관련된다면(Bush, 2002: 171) 그는 미래의 복된 일을 선언한 셈이다. 보아스는 기업무르는데 자신이 우선권을 갖지 않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룯을 안심시킨다(3:13). 또한 룯의 평판을 지켜주고(3:14)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면서(3:15)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Waal, 1966: 151).

(2) 보아스의 율법준수

보아스는 나오미가 기대한 대로 그 일을 성취하기에 쉬지 않는 자였다(3:18-4:1).

그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율법을 따라서 처신했다. 밤에 타작마당에서 롯을 만나서 그녀에게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 대해서 말한 것도 율법을 따른 것이다. 아마도 나오미는 가까운 근족을 알았을 수 있을 것이다(Huey, 1992: 538). 어쨌든 그녀는 보아스가 이 일을 해주길 바랐을 것이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던 사사시대에 보아스는 처음부터 법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기업무를 자를 부르고 장로 열 명을 청한 것은 그가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근동에서 성문은 시민들이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거기에 모여 공동체의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소문도 퍼뜨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했다(창 23:10, 18; 신 16:18; 22:19; 롯 4:1, 11; 삼하 19:8; 왕상 22:10; 암 5:12, 15). 열 명의 장로를 청한 것은 일이 잘못될 때는 이들의 연륜을 이용하여 사태를 즉시 수습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가 기업무를 자에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고 있다(팔았다)”(롯 4:3)고 하면서 무를 것인가를 물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롯은 보아스에게 그것을 이야기 한 것 같다. 그때 그는 율법의 조치를 따라서 기업무를 자의 임무를 기꺼이 행하려고 하였다(레 25:25). 그러나 그는 롯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거절하면서 “내가 무르라”고 했다(4:6). 그 손해란 상속권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으며 그 임무를 이양했다(4:8). 그런데 그가 신을 벗은 것은 신명기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신 25:9) 이 본문은 이 행동으로 보아스와 롯의 계대결혼을 합법화한다(LaCocque, 2004: 133).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맞아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장로들과 거기 있던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일의 법적인 성격을 강조했다(4:10-11). 그는 롯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4:13).

보아스는 말론의 형제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다. 그는 나오미가 요구한 것을 알고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이타적인 사랑으로 행했다. 그는 기업무를 자로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 ‘구속자’다. 그 결과로 왕이 없어서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사시대에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게 되었다.

III. 본문적용 문제

1. 사회적 적용

롯기의 내용을 교회에서 사회로 확대적용한 대표적인 논문은 여한구교수의 논문(2010: 70-103)이다. 여한구(2010: 73)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먼저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증가하는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롯의 이야기를 통한 통찰을 현대사회에 적용한다면 한국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

리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여기서 룻으로 대표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회의 목회방향을 보아스와 나오미의 태도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룻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모압과의 사회통합을 통해 왕국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룻의 정착요인에서 나오미와 보아스의 역할은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2010: 81). 여기서 나오미는 이주자의 사회적 멘토 역할을 하고 보아스는 이주자의 사회적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룻기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준다. 이삭줍기와 고엘(기업무를 자)제도도 언약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를 다룬다. 교회가 룻과 같은 이주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룻기 본문의 이주여성을 돌보라는 메시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적용할 때는 교회와 사회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 본문으로 한국에 이주해온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데 교회의 역할에 대한 모델로 보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 상황에 맞지 않다.

물론 룻의 경우를 본보기로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하나의 성경적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룻기에 나타난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조직과 기능을 반영한 국가정책을 이용하여 이주민 정착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2. 교회적 적용

최근 룻기의 내용을 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것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경우는 이성혜(2015: 9-39)교수의 논문이다. 이교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행동과 삶의 중심이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룻기의 교훈이라고 한다. 또 “교회에 들어온 타문화 사람들에게 ‘고엘’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룻기는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이성혜, 2015: 34). 이 논문은 룻기가 보여주는 사건을 언약공동체 내부에 그 적용시킨 것은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이 적용은 구조에서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 구성원이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 교훈은 구약의 인물을 하나의 모범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인물의 행동이 교훈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행동을 모범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교수의 논문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적용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다.

3. 구속사적 적용

성경본문을 이해할 때 우선 저자가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다른 파생적인 의미와 교훈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구약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일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지 인간의 행동양식을 통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공간 속에서 펼치는 역사다. 그래서 룻기도 주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Schilder, 1982: 42).

특히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는 배교의 시대에 또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서도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것은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태를 반전시키고 메시아의 길을 여신 것과 같다. 룻기 전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방여인 룻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방인이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구약의 오순절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변화받은 나오미의 역할과 보아스의 믿음과 룻의 순종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제시한다.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혼란이 그 시대의 특징이 된 때에 왕이 오는 길을 보여주면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준다. 이 역사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룻기를 읽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IV. 결론

룻기가 이주여성의 정착을 다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룻기가 이주여성의 정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적용과 교회적 적용도 마찬가지다. 본문의 핵심내용은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불충한 나오미의 가정에서도 룻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한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터치고 들어오는(베레스) 은혜는 인류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길을 열고 그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여한구 (2010). “룻기를 통해 본 이주여성 사역에 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22. 70-103.
- 이성혜 (2015). “룻기에 나타난 헤세드.” 『개혁논총』. 33. 9-39.
- 정중호 (2012). “다문화 사회를 위한 귀환이주 전승.” 『구약논단』. 18(4). 178-204.
- Block, D. I. (1999). *Judges, Ruth*.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 Bush, F. W. (1998). *Ruth, Esther*.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Incorporated.
- Cnossen, S. S. (2000). *The Significance of the Book of Ruth*, London, Ontario: Inter-League Publication Board.
- Conklin, B. (2011). *Oath Formulas in Biblical Hebrew*. Winona Lake, IN: Eisenbrauns.
- Goslinga, C. J. (1938). *Richteren. Ruth*. Kampen: Kok.
- Harris, J. G. et al. (2012). *Joshua, Judges, Ruth*.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Huey, F. B., Jr. (1992).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ume 3: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1 & 2 Samuel (F. E. Gaebelin, Ed.).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 Koehler, L., et al. (1999).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New York: E. J. Brill.
- LaCocque, A. (2004). *A Continental Commentary: Ruth*.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 Schilder, H. J. (1982). *Richteren en Ruth: Een vacature vervuld*. Kampen: Kok.
- Smith Mark S. (2007).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Family and Covenant in Ruth 1:16-17.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9. 242-258.
- Tigay, J. H. (1996).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 Waal, C. van der. (1966). *Sola Scriptura: wegwijzer bij het bijbellezen I*. Goes : Oosterbaan & Le Cointre, 1966.
- Waard, J. D. & Nida, E. A. (1991).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Book of Ruth* (2nd ed.). UBS Handbook Seri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 Wolff, de I. & R. Houwen (1974). *De geschiedenis der Godsopenbaring III*. Enschede, The Netherlands: Uitgeverij J. Boersma B.V.
- Younger, K. L., Jr. (2002). *Judges and Rut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https://www.google.co.kr/search?q=%EC%99%B8%EA%B5%AD%EC%9D%B8%EC%88%98&newwindow=1&biw=1200&bih=581&tbm=isch&tbo=u&source=univ&a=X&ei=gDg4VcrpLqOrmAXu9oDwDg&ved=0CEIQsAQ>. (검색일 2015.4.23)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약본문 해석과 적용: 롯기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이 성혜

논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의 외국 이주민들의 수가 급증하여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롯기해석과 적용을 제시하기위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지를 펼치고 있다. 먼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마지막에 현대적 적용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저자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여 두 아들들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킨 불신앙의 여인이며, 롯 1:15절에서 롯을 종교 다원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롯1:15)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오미가 보아스와 롯을 주선하는 모습(2-3장)에서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이 나타나는 일에 기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분석한다. 롯에 대한 인물 분석에서는 롯 1:16b-17a에서 나타나는 롯의 사랑의 맹세와 보아스를 향한 믿음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에 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또한 보아스의 관대함을 통해 롯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므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되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롯기 본문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롯기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에 롯기를 한국의 사회적 현상에 적용함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현대 사회적 상황에 롯기를 모델화하여 일반적 적용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롯기를 교회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이끈 하나님의 '혜세드'가 교회적 적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롯기의 구속사적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방여인 롯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롯기 전체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관점의 해석과 이해,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롯기의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롯기는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논문의 기여

이 논문은 롯기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주요 등장인물을 연구 분석함에 있어서 구속 역사적 관점이라는 통일된 해석적 키를 가지고 롯기 전체를 통일성 있게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롯기의 한 인물에 집중하지 않고, 롯기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진 이 해석은, 롯기 본문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역사가 통일성 있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롯기를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단지 롯기만이 아닌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의 연속선상에서 롯기를 해석하고 적용하

도록 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롯기에 나타나는 난해한 구절들과 핵심구절들을 롯기에 흐르는 사건 속에서 적절하게 잘 제시하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롯기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을 인물연구들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논문의 장점이다. 그러므로 롯기의 해석과 적용이 현대 한국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롯기해석이 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제안과 질문

이 논문은 롯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문해석과 사회적 상황이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좋은 문제제기와 구속사적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논문에 저자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논평자로서 논문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이 논문의 저자는 롯기의 해석의 중심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 면에서, 롯기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1:6절)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4:13절)가 인클루지오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 구속역사가 나타나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롯기 전반(1:9, 13,17, 20-21; 2:12, 20; 3:13; 4:11-14)에 나타나고 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을 위의 구절들과 같은 부분들을 통하여 따로 명시한다면 저자의 논지가 더 강하게 뒷받침되리라 생각된다.

2. 저자의 등장인물 분석 중에서 나오미가 1장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제시하고 2-3장에서는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나오미의 획기적인 변화된 모습을 롯 2:20절,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중의 하나이니이라”에 근거를 두며 “인간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p4, Cnossen)라 한다. 또한, 저자는 이 순간 나오미는 이전과 달리 변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저자의 논지처럼 나오미의 변화와 회개를 통해 나오미가 결과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여는 자가 된다면, 나오미의 획기적인 변화와 회개의 중요한 근거를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롯기의 구속사적 본문해석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3. 저자는 롯이 보아스를 통해 롯에게 주려한 것이 ‘안식’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약속의 근거를 왕정시대인 솔로몬의 축복이 나타나는 왕상 8:56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롯기의 배경이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할 때에 라고 하고 있기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본문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제안들이 있지만, 본 논문이 롯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 된다고 본다. 또한 롯기를 현대적 상황에 적용을 함에 있어 신중함을 가져야 함을 제시한 연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 믿음의 반응의 교훈을 통해 얻는 말씀의 교훈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의미있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